■ 상록탑

아직은 2회초니까!

이겨레 커리어취업팀 취재부장

It ain't over till it's over. 야구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팬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문구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은 뉴욕양키스의 유명 선수 요기베라가 남긴 말로, 끝까지 알 수 없는 승부를 펼치는 야구와 같은 스포츠에서 자주 쓰인다. 그런데 최근, 이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곤 했다.

중학교 3학년까지만 해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다. 고등학교 입시도 성공했겠다, 주변 관계들도 나름 원만하고, 자신감에 차서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그런 나날들이 지속되었으면 좋았겠지만, 희망했던 고등학교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다. 성적도 학교생활도 노력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결과가 그렇다 보니 남과의 비교가 늘어 위축된 채로 지낸 적이 더 많았다.

첫 입시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친구들이 시간표를 짜서 SNS에 올릴 때 나는 학원의 주어진 시간표를 받았고,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놀러 갈 때 나는 츄리닝 차림으로 하루하루를 다시 반복할 뿐이었다. 학번이 밀리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1년을 버텼다. 대학에 가면 무엇을 할지, 여행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정말 1년을 버틴 후에 대학에 왔다. 그런데 웬걸, 이번엔 전염병이 내 앞길을 망치다니.

눈부실 것만 같은 20대도 10%는 입시로 날려버리고, 새내기의 삶은 온통 비대면. 덕분에 남들 다 해본 대학생활에서 추억으로 건질 것들이 없다시피 하다. 코로나19 생활에 막 익숙해졌을 때쯤, 어쩌다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또 말썽이었다. "서울 중앙지검인데요..."

선량한 시민으로서 수사에 협조하고자 했던 내 호의는 결국 한 학기 등록금을 날리고, 누명을 써서 경찰과 매일 전화에, 남들은 태어나 한번 갈까 말까 한 경찰서도 들락거리게 한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우리 집 막내였던 코코도 내 곁을 떠났고, 또 그 학기 성적은 유난히 맘에 안들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몇 번이고 묻고 싶었던 말이다.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계속됐다. 자책도 많이 했다. 그 때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할걸,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등 당시 내 머리는 부정적 상념들만 부유하고 있었다. 모든걸 다 포기하고 싶고, 그래도 될 것 같았다. 나는 좀 힘든 상황이고, 이런 일들을 겪었으니까. 난 뭘 해도 잘 안될 거 같으니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았지만, 당시 친구가 해준 말을 듣고 부정적 태도에 제동을 걸었다. 학보를 같이 만들던 최은의 한마디. "아직은 2회초니까 괜찮아" 듣는 순간 탁 와닿았다. 스포츠를 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승부들을 많이 관전하는데, 특히 야구는 시간제한이 없는 흐름의 스포츠라 더더욱 그러하다. 확률은 적더라도 끝까지 노력해 대역전극을 이뤄낸 경기들을 여럿 본 적이 있다. 2:10의 스코어에서 꾸준히 점수를 내서 16:15로 이긴 경기라던지, 7:1에서 9회에만 7점을 내 역전한 경기라던지.

끝까지 가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게 경기고 또 그건 우리네의 인생과도 닮아 있다. 생의 전성기를 조금 일찍 맞아 호시절을 누리다 말년에 좋지 않게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지속된 실패가 이어지다가 노후에 전성기를 맞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이를테면 KFC 창업자 할랜드 샌더스처럼.

지속적으로 경쟁을 부추긴 사회 때문인지, 초조함에 삶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봤던 듯하다. 지금이 다일 것 같고, 지금의 상황이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 혹은 낙관으로.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푸슈킨의 말처럼, 지금 필요한 건 멀리 보면서 좋은 날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야구에서 약속의 8회를 기다리는 팬들처럼.

내 유년기와 10대에 얼마나 많은 점수를 얻고, 또 얼마나 많은 점수를 내주었든 지금 건강한 상태로 삶을 이어가는 걸 보면 1회는 나름 선방했다. 아직 20대 초반인 나는 긴인생에서 2회초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내 홈에서 인생이란 게임을 이어간다 생각하면, 지금의 실수와 잘못들을 만회할 2회말이 있을 거고, 더 길게보면 내 인생이 끝나는 9회말까지도 승부는 알 수 없을 테니! 그러니 모두들 각자의 9회말까지 온전히 다 삶을 누렸으면 한다. 살아있는 동안 기회는 계속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이기에.

■ from 편집국

학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싶습니다

황서량
편집부국장

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대학보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가 무색하게,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름에서 가을, 겨울에서 봄이 되는 환절기에는 늘 '감기 조심하라'는 말이 인사치레로 따라붙습니다. 그 두 시기만 유의하면 몸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왜 마음의 감기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까요. 마음의 감기도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예고도 없이 우리를 덮치는 걸까요. 속상하기만 합니다.

2020년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주관으로 실시된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의 우울감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고 합니다. 우울 위험군의 비중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도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취업, 진로 고민, 가족이나 대인관계 문제까지요.

한치 앞도 모르는 현대 사회 속에 던져진 20대가 혼자 우뚝 서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래 친구들은 그들만의 길을 잘 꾸려 나가고 있는데, 나만 갈피를 잡지 못한 것 같아 매일 불안에 시달려야 하죠.

이대학보는 이러한 독자들의 마음을 읽고, 위로하고자 이번 학기 지면상담 코너를 임시적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저희 동문이신 정신과전문의 배승민 선생님께서 신청자의 사연을 바탕으로 지면을 통해 상담해주시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본교 미디어센터 연구원이신 장재원 선생님께서 기획하셨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직접 사연을 의뢰하면, 정신과전문의가 이대학보의 지면을 통해 상담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화인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정신과전문의에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이화인, 학생상담센터 예약이 어려웠던 이화인, 아직 병원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는 이화인 여러분께서 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처받은 독자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이대학보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론광장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염경민 휴먼바이오·18

친구와 함께 처음 가본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며 서로에게 묻는다.

"뭐 먹고 싶어? 뭐 먹을까?"

한 가지를 주력해서 파는 가게는 매우 드물고, 여기에 더해 다소 독특한 이름을 가진 메뉴들로 메뉴판이 채워져 있다면, 음식 소개와 재료 설명을 읽어보기 바쁘다.

SNS로 사전에 후기를 찾아온 친구가 있다면, "여기 이게 맛있대!"라며 비교적 빠른 주문이 이루어질 것이다. (애초에 후기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가지 않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러나 후기를 봐도 잘 모르겠거나 여러 개를 주문해야 하는 경우, 테이블 위 고민하는 시간은 길어져 슬슬 눈치가 보인다. 그럴 때 나는 "그럼 가장 먹고 싶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며 가지치기 방식을 제안하지만, 이것 또한 통하지 않을 땐 어쩔 수 없이 "저기요~"라고 사장님을 부르는 수밖에.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주문하나요?"

하지만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맛있어 보이는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예상과 달리 맛이 없다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비싼 돈을 낭비했다는 생각에 입가심할 디저트를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다.

흔히 다양한 선택지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말한다. 앞에 놓인 여러 선택지 중 각자 희망과 선호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우리는 선택에 있어 정말 자유로울까? 질문에 앞서 선택에 있어서 돈, 시간, 감정 등과 같은 한정된 자원 분배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니 애당초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메뉴 선택에 있어 고민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혹은 먹고 싶은 게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가능성 중 자신에게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것을 선택하기 위해 심사숙고한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기에 그것의 결과 역시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에 무의식적인 부담을 느끼고, 주변의 후기나 신뢰할만한 조언 등을 얻음으로써 이를 덜고 싶어하는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꽤나 합리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결과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아! 내 입맛에는 별로인가 보다. 이곳이 정말 맛집이 아니거나, 거짓된 후기였거나 혹은 그날따라 주방장이 음식 간을 잘못했다 등의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들은 메뉴 선택보다 더 오랜 시간, 생이 끝날 때까지도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며 살지 고민한다. 이는 무엇과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에 졸업을 앞둔 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은 진로 고민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와 같은 명제 역시 개인에게 많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 명제가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면, 이는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주변에서 자신이 정작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다. 그들의 속사정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실패 그 자체보다 개인에게 드리워지는 책임으로 선뜻 선택하기를 유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한 가지 기억하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은 없으며, 그것의 결과의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 금주의 책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리사 펠드먼 배럿 지음 / 서울 : 더퀘스트 : 길벗 / 2021

칼 세이건이 소개하며 확산된 삼위일체 뇌 가설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각각 생존, 감정, 이성을 관장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복잡한 사고를 가능케 하는 커다란 대뇌피질이 있다는 점에서 더 우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때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사를 통틀어 가장 성공적이었던 이 가설이야말로 가장 널리 퍼진 오류 중 하나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언제 필요할지 예측함으로써 가치 있는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신체를 제어하고, 타인의 뇌와 상호작용하여 여러 감정들을 만들며,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를 창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간의 뇌는 다양한 종류의 마음을 만드는데, 하나의 보편적인 마음이 존재할 것이라는 착각을 넘어 "어떤 종류의 마음도 다른 어떤 마음보다 본질적으로 더 낫거나 나쁘지 않다. 다만 환경에 더 잘 적응한 변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진-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홀 금주의책 / 5층 일반자료실 612.82 B275s한]

■ Z의 시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중국을 이기는 방법

김아진 경영·19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뉴스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느낄 수 있다. 코로나19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전부터 축적된 고구려 역사 왜곡, 김치와 한복 등의 문화 왜곡 등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필자는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고 다른 학생들보다 혐오적 표현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나도 모르게 혐오적 발상과 표현이 튀어나와 반성한 적이 꽤 있다. 심각한 것은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서 나아가 중문학 및 전공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중어중문학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중문과가 필요가 없다고 비난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꽤 가슴이 아팠다. 중문과는 어학도 배우지만 사회, 문화, 문학 등 더 깊은 것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중국어를 배우는 학과로만 치부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복잡한 국가다. 정치는 공산주의를 택하지만 경제는 중국식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공존함에도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치로 인해 한족화가 되어가고, 독립을 위해 계속 저항하는 정말 알 수 없는 국가다. 겉과 속이 다르며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양파처럼 계속 껍질만 나오고 알맹이가 나오지 않는다. 중국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들의 머릿속을 읽을 수 없다.

중국 시장이 엄청난 블루오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지 못해 퇴각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오늘 읽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의 강한 규제와 중국 시장 분석에 실패한 것이 아닐까 싶다.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은 한국 기업들과 다르게 중국 정부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 중국 커피 시장 1위를 달릴 정도로 중국 정부와 시장을 잘 파악했다. 한국은 같은 동양임에도 중국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진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중국 토종 기업을 이기기 위해서는 중국 관련 전문가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조선족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하니 중문학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배우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중국을 잘 알아야 중국 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다른 국가에서 매출을 올리면 되지 왜 중국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14억 인구를 지닌 국가이다. 14억 중국인이 1원씩만 돈을 내도 14억 원이 모인다. 구한 말, 서양에 대한 일본과 조선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다. 일본은 서양의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흡수했지만(일본 내에도 서양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꽤 있었다.) 조선은 대문을 닫아버렸다. 당시 일본에서는 서양 제도와 문물들을 분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으며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일본은 서양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일본은 서양 문물을 이용해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선 것이다. 현재도 똑같은 상황이다. 중국에 거부감이 들더라도 중국을 이용해 우리의 경제력을 키우고 세계에 더 넓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만약 한 번 더 대문을 닫으면 빠르게 발전할 기회를 놓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고 중문학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